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 Vol. 219 6월 20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이달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2절)

사랑의 편지

죽음을 이긴 사람

오래전 미국 뉴욕에 살던 한 개그맨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길 바라오. 이것이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요.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는 없소"

죽음은 유머도 아니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사건이다. 성경에는 죽음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죽음은 슬프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로써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이었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고, 로마제국은 복음으로 정복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도광고 후원 / 김수정 사모(사암교회)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131-005-937566 (신협)
172242-51-085114 (농협)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칠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집회와 행사"가 가득히



▲ 쥬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유코대회)에서 참석한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 유코리아뉴스DB

2017 블레싱 춘천 청년 통일 컨퍼런스

1972년에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전(全)교회가 전(全)복음을 전(全)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도시변혁운동이다. 이 도시변혁운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도시를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운동은 어느 한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공동의 비전이자 사명이다. 이 비전을 지난 45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장년세대가 거룩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헌신을 했다면 다음 세대들은 이를 계승 발전하여 70년 이상 분단된 이 나라의 복음적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비전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춘천의 유일한 분단 도(道)의 수부도시이다. 그렇기에 춘천의 도시적인 사명을 기독 청년들이 인식하고 복음적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비전을 갖고 한발을 더 내디뎠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7년 블레싱 춘천" [청년 통일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역의 기독청년들이 복음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일과 아울러 분단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이병철 목사(주항교회)

- 일시 / 장소 2017년 6월 25일(주일) 저녁 7:00~9:30 /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
- 강사 오준 전UN대사(주제강의), 강디모데청년, 김보관청년, 이정현청년(TED강연)
- 부대행사 6.25 체험 주먹밥(저녁식사 6시부터) / 해설이 있는 6.25 사진전 "6.25 전쟁과 기도"
- 주최 / 후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033-256-1260) /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홀리클럽 "창립 제21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할렐루야!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6.25의 아픔을 잊지 못할 6월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섭리로 모든 것이 변하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 홀리클럽은 199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조남진 장로님, 고 이학규 장로님과 춘천 기관장 전용태 검사, 양인태 검사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춘천을 성시화하기 위해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창립하였습니다.

그동안 홀리클럽은 '춘천을 성시화', '거룩한 성령운동 회복', '지역사회 섬김' 의 세 가지 목표로 춘천을 거룩한 예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행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구하며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21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 홀리클럽의 제2도약의 시대를 꿈꾸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춘천의 여러 교회와 목회자님, 성도님, 회원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춘천홀리클럽 회장 김종열 장로(신성감리교회)

- 일시 / 장소 6월 11일(주일) 저녁7시30분 / 석사감리교회(손학균 목사)
- 강사 주성민 목사(세계로금란교회)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춘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권형 _ 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070.4300.8731

제2회 6 · 25 구국기도회 개최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제2회 6 • 25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4시 북한공산군은 일방적인 남침공격으로 6 • 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동족간의 피 흘리는 전쟁이 생기지 않고 복음적인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작년에 이어 "제2회 6 • 25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바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글/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회장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일시: 6월25일(주일) 오후2시30분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
*강사: 장향희 목사 (든든한교회)

6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6차모임은 세이레 평화기도회로 갖는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6차 춘천모임은 6월 12일(월) 저녁7시15분에 (사)평화한국 주관으로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열린다. 금번 모임은 평화한국이 주관하는 세이레 평화기도회로 갖는다. 세이레 평화기도회는 민족을 위해 21일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단 10:2), 매년 6월 6일부터 26일까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교단 · 교파를 초월하여 여러 교회와 선교 및 NGO단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회이다. 금번 강사는 박영권 본부장(평화한국)이다.

WaW Ministry Talk Concert II 개최

WaW Ministry가 "아버지 어머니여, 자녀로부터 독립하라!"라는 제목으로 Talk Concert II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자녀를 둔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자녀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강사는 권영인 박사(연세대학교 가정학 연구교수), 심재훈 사목(DGMIT, SpringWorks 사목, YWCA춘천)이다. (문의: 심재훈 목사 010-7363-5118)

· 일시 6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춘천YWCA
· 강사 권영인 박사(연세대학교)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자!" TED 강연회 개최할 교회 모집
강사에는 기정희 원장(정신과전문의, 베드로병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자!"는 제목으로 TED 강연회를 기획하여 개최할 교회를 모집한다. 차별금지법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도들이 바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성을 춘천교회에 전해 줄 TED 강사는 기정희 원장(정신과전문의, 베드로병원, 선교사)이며, 대상은 교회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와 성인예배이다. (문의: 033-256-1260)



제11회 춘천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 예 수 」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제11회 춘천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예수"가 2017년 7월 8일(토) 오후7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윤창호 지휘 및 총감독, 소프라노 김현주, 테너 이광순, 바리톤 강종영, 작곡/편곡 이재정, 반주 박실, 아리랑 팝오케스트라와 춘천성시합창단이 펼칠 이번 공연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빛낼 성가곡의 대축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은 춘천시, 강원일보, 강원CBS,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하고, 춘천성시합창단과 아뉴스오페라단이 주최하며, 춘천성시합창단이 주관한다. 여름을 열어가는 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도록 춘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성시합창단 단무장 이기영집사는 전했다.

· 일시 7월 8일(토) 오후 7시
·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 주최/주관 춘천성시합창단 아뉴스오페라단 / 춘천성시합창단

공연관람료: S석 50,000원
A석 20,000원
문의: 010-2529-6193

설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 (로마서 8:5-8)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이고 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는 스킨(skin)론과 자연주의 사상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층은 총 5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진짜 피부', 둘째 '입고 있는 의복', 셋째 '살고 있는 집', 넷째 '사회', 다섯째는 '지구' 즉 '환경'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대로 5개의 피부는 생명과 평안을 위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구적이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모두 낡고 변하고 무너진다. 여섯 번째 피부를 추가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신명기 30:20), 바울사도 역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롬8:5),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6)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출발점이다. 육신은 죄로 인해 죽기로 정해져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해도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죄된 육신의 생각은 목표가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늘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에 모든 인생을 건다. 결국 육심 따라 살다 죽음에 이른다. 그의 삶은 육신에게 져서 날마다 비참하게 된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육신의 생각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 은혜로 되찾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들였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드리는 것을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으로 여긴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의 다윗왕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묵상하고 따랐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였다.(시23편, 시1편)

생명과 평안은 돈에 있지 않다.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데서 시작된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영이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잠 1:33)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

생명과 평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글/ 신재원 목사 (새춘천 성결교회)

선교 편지



▲ 남병진 선교사 가정

춘천출신 남병진 선교사 "인도 비하르에 은혜로 다가서다"



저는 춘천은혜교회에 출석하던 지난 2002년 봄에 춘천의 베드로선교센터에서 진행된 MTS(미션 퍼스펙티브스 스쿨)2기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선교현장학교라는 이름으로 인도 비하르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힌두원리주의 단체의 하나인 '바지랑달'이라는 단체 소속의 청년들로부터 주일예배 시간 중에 폭행을 당하는 일을 계기로 인도 비하르로 부르심을 확인 하고, 2003년 비하르선교협의회에서 파송을 받아 인도 비하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에 루마니아에서 온 마리아 선교사와 결혼을 하여 1남2녀의 자녀를 둔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현지어인 힌디나 영어를 전혀 몰랐지만 함께 살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존 알테무스)를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무작정 따라하기(?)로 시작된 언어는 대학교에서 5년 과정의 힌디문학 학사와 석사를 9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이런 저의 작은 바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비하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소개합니다

■ 고아원 사역

기독교 지도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아가페 코테지"는 2003년 1월에 2명의 남매를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33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며 인도의 다음세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6명의 스텝이 운전, 사무행정, 주방, 생활지도 교사 등으로 섬기고 있으며 루마니아에서 온 티미, 제띠 선교사 가정과 에미리 자매가 음악과 주일 학교 운영 외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코테지"에 오는 아이들은 비하르 주의 각 지역에서 지역 목회자들의 사역지에서 보내져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아가페 1,2,3이라는 각각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고아원 만의 시설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아이들이 고아원이라는 시설에 수용된 것이 아니라 아가페 코테지라는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아가페 1, 2로 나누어져 남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페 3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가페 코테지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스스로 자신들을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식사준비, 생활비 관리 그리고 생활 시간표까지 본인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비하르 주의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고아원 주변의 마을들에 나아가 주일학교를 2010년부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성탄절과 부활절 등의 시간에는 집회 인도와 캐럴링 등을 통하여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 건강한 영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맡겨졌던 짠단 쿠마르가 작년 2015년 7월에 일라하바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언론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3명의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들이 사회에서 건전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기에 대학공부는 물론 결혼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르는데 까지 영적, 심적, 물적 후원을 하기 원하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청소년 장학사업

2015년 1월 고아원 주변에 외할머니 집에 있는 고아 3명을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그 중 한 명을 아가페 고아원에 입양을 하였고 남아있는 누나는 저희들의 시설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계속 외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학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의 아동 청소년 중 학업의지는 있으나 가정환경(고아, 가난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17명의 아동 및 청소년의 학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교회를 통하여 매주 교제를 하고 있으며 삶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 교회사역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형성을 목표한 교회 사역은 현재 교회는 다르방가와 빠뜨나의 두 곳에서 5가정의 전임사역자들과 함께 주일학교, 여성기도모임, 청년회 성경공부, 3:3(세사람이 모여 각각 3사람을 중보하는)기도모임 등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초기에는 함께하는 사역자들조차 교회가 무엇인지 잘 이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진혀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다르방가에서 60여명의 성도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빠뜨나에서는 10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시작 되어 매 분기 마다 진행되는 전도집회는 수 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다르방가에서 동북쪽으로 130여km가 떨어진 '아라리아'라는 네팔 국경근처의 도시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정탐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500만명의 인구가 사는 지역으로 아직도 복음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코시'라는 강이 흐르는데 지난 150년 동안 강의 물줄기가 서쪽으로 150km을 이동하면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으며 도로나 철도의 미비로 접근성이 매우 나빠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접근을 하락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지나게 되어 복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지게 되었습니다. 정담을 하면서 알게 된 '우르밀라'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15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영적인 목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며 저희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센터 교회가 설립이 되어 진다면 이 곳을 중심으로 네팔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 입니다.

■ 교육사역

다르방가와 빠뜨나 지역에 교회 개척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작된 공부방 형태의 학습센터가 3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모두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힌디, 영어, 수학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8명의 선생님들이 파트타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하여 2012년 3월 부터 다르방가에서 시작된 6개월 과정의 재봉기술센터는 이제 다르방가와 빠뜨나 두곳에서 약 50여명의 학생들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르방가센터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훈련의 질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 지역의 높은 카스트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위 계층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곳에 온 상위 계층의 여성들은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매주 토요일에 있는 기도모임에 참석을 하여 믿음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비하르는 지금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춘천의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지난 20여년 간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씨앗이 이제 자라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춘천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아라리아 지역에 교회가 속히 개척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영적인 자원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가페 코테지 3이 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6월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합니다.

- 저희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가정으로 서 나가길 원합니다.

칼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강도만난 자

글 / 한 소망 선교사(NK사역)

지난 1년 동안 C국 한지에서 탈북민 선교사역을 하며 여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 시간을 인해 북한 주민의 의식과 침상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경을 봉독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누가복음 10장의 강도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북한 주민들)이야 말로 강도만난 자들이며,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말을 했다. 그들의 말대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북한 주민이야말로 강도만난 자들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의한 악한 독재 정권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악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존권을 빼앗았다. 특히 신앙의 자유도 빼앗았다. 굶주림과 박해와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같은 민족인 그들이야말로 강도만난 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강도만난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 줄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바로 한국교회가 아닐까!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주어진 물질적 풍요와 교회의 성장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생과 행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도만난 이웃인 북한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북한 주민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며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땅에는 3만여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다. 그들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며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청찬 릴레이



'세상의 만나! 만나보다.'

오는 8월말 춘천문화원 의암전시실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현재 춘천 효제초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김승덕 장로의 시조화 전시와 시조집 출판기념회이다. 이번 전시회가 특별한 이유는 출석교회 시무장로이자 선교부장인 그는 국내외 선교후원을 해오다가 올해 8월말 교장 퇴직을 앞두고 오랜 동안 작업했던 시조화를 전시, 판매하여 판매금 100%를 필리핀 빈민지역인 다구판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전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안타깝게도 급성폐혈증이라는 하나님의 갑작스런 부르심으로 소천한 장로의 부인인 고 방경자 권사는 평상시 교회봉사와 헌신을 다하며 성도들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주었던 그가 생전에 원했던 본 교회의 성전 리모델링을 남편인 김승덕 장로가 가족과 합의 봉헌하여 성도들에게 깊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흠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근면하고 예비하는 자세와 교회의 건덕을 위해 질서 있게 화합하며 소임을 다하며 복음전도에 담대하게 힘쓰는 모습에서 진정한 장로의 직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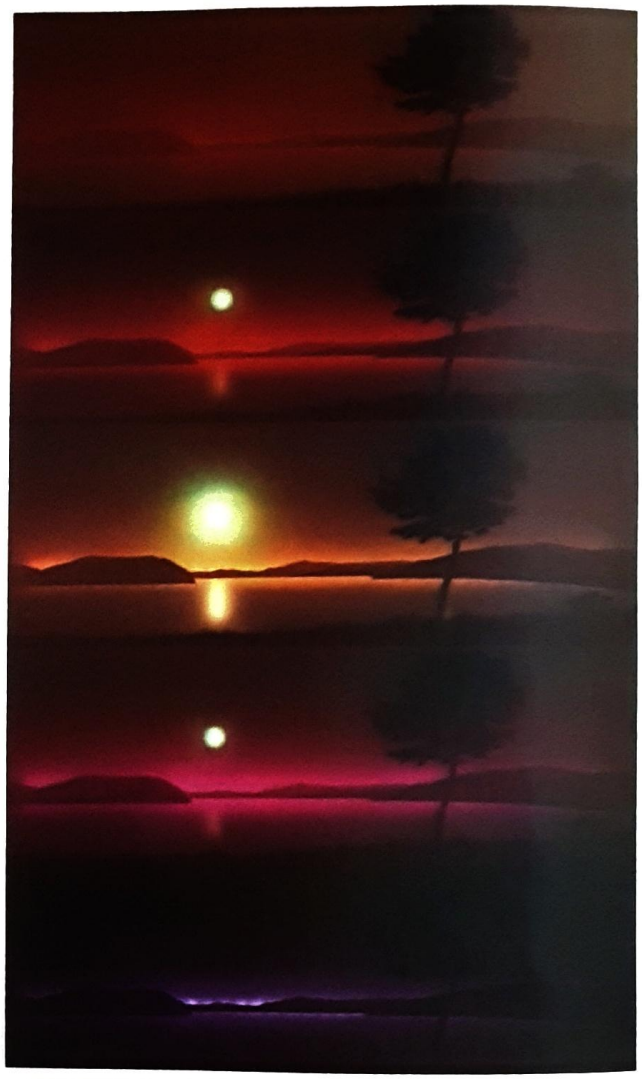
김승덕 장로/ 만62세 (1955.3)
1987년(32세), 홍천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
현재 한길감리교회 시무장로(선교부장)
춘천효제초등학교장, 시조시인

작품 이야기

Genesis I,

작가 / 박진원

Acrylic on canvas, LED 2009 120x40cm



한 작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에서 영감을 얻은 작업으로 일반 캔버스 그림밑에 LED조명을 컴퓨터로 조절하면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업으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소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성시 결혼예비학교 교육생 모집

- 모집대상 : 실제 결혼을 앞둔 커플(1년이내 결혼할 커플)
- 모집기간 : 6월 25일(주일)-7월 2일(주일) 선착순 5커플
- 교육기간 : 7월 16일(주일)부터 6주간 (주일 오후4시)
- 교육장소 : 사암교회
- 강 사 : 최상도 목사(예비부부의 삼 강사)
  이병철목사(주향교회 담임)
  조영춘목사(성시본부 사무총장)
  최영조목사(갈릴리교회 담임)외 다수
- 강의내용 : 결혼의 준비와 실제
- 회 비 : 1인 2만원
- 후 원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평화도시연구소
- 문의 및 접수 :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탐방

고은장로교회 입당예배
새 역사를 기대하다



담임목사 김은선

먼저 고은교회 입당예배를 드린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은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을 해서 새로운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교회는 제가 개척하여 시무해 오던 꿈이있는교회와 주향한교회가 통합하면서 세워졌습니다. 주향한교회가 고은리에 건축하는 중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 진행이 중단 된 상태였습니다. 노회 체육대회에 갔다가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향한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려고 해도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해 온 권사님 가정, 특히 남편이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사역을 15년 정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적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응답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맡아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 가정을 돌봐주고 교회가 마무리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은 아무런 사심이 없이 떠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진심이 느껴져서 어렵지만 저도 통합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정말 두 교회가 통합이 되어 입당예배를 드리기까지 은혜가운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교회 입당예배를 더 빨리 드릴 수 있었는데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6개월 정도 마무리 공사를 하고 바로 입당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가 준공이 나기까지 여러 사정이 생겨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약간의 영적 공백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당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원대학교 완화의료병동에서 1주일에 한번 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열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병동 열린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불교신자도 있고,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당예배에 열린모임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서 특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입당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고, 다른 한 부부가 입당예배를 통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교제하며 기도하는 목회자기도모임에서 와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등 정말 축복된 은혜가 넘쳐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은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강원대학교 병원 완화병동이 개원하면서 영적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는 가운데, 제가 연결되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병원 사역과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15년 정도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상 세례를 주어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에 인도되도록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치유사역센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은교회 옆에 407평의 부지를 기적적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전인적 치유센터를 소망하는 그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교회 표어도 '함께 세워가는 베데스다 치유센터' 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전인적인 치유센터를 세워서 병들고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센터를 세워 사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완화의료병동 열린모임





▲ 입당감사예배

취재 / 이병철 기자 (주향교회 담임목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글로벌 리더의 첫걸음

자연유치원

원장 이관형(한길교회 권사)

24312 강원도 춘천시 복골길 29

☎ 033.241.5511, 5522



2017학년도 유치원 하반기 장학생 선발

자격: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혹은 전도사 자녀로 2012년생 3명 선착순

100-1=0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f you subtract God from a 100% success, then you have nothing.

교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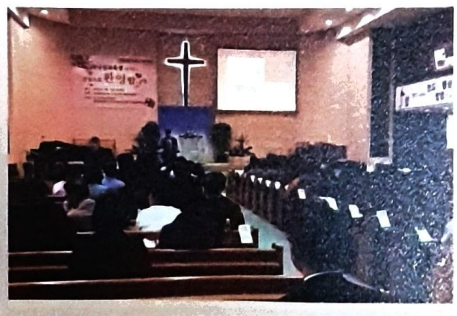
2017 부활절연합예배 전도계란 나누기 행사로 이어져



2017 부활절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칠 목사)의 주최로 4월 16일(주일) 오후1시50분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은혜가운데 드려졌다. 1부 예수부활생명축제에서는 춘천기독청년연합모임의 파워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무언극(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팀) 공연이 있었다. 2부 부활절 감사예배는 수석부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부회장 남준섭 장로(춘천장로연합회장, 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이어 서기 박태균 목사(주님의 감리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회장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인사 및 강사소개가 있었다. 부활절 감사예배의 강사인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약속대로(마태28:5-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어 합심기도시간이 있었는데, "북한 땅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남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는 손학균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장, 석사감리교회), "강원도와 춘천땅에 극단적 이슬람과 동성애, 사회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은 김한호 목사(춘천교경협의회 회장, 춘천동부교회), "춘천의 성시화와 춘천의 400여 교회를 위하여"는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춘천광염교회)의 인도로 있었다. 헌금기도에는 조용아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회계, 성광장로교회), 봉헌찬양에는 강원CBS 소년소녀합창단이 했다. 이어서 총무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의 광고 후, 권오서 목사(강원기독교연합회장,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3부는 부활절 전도계란 나누기 행사로 이어졌다. 모인 성도들이 준비된 전도계란과 전도지를 가지고 흩어져 출석교회 주변에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은혜롭게 마무리 했다.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 문화 체험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 문화 체험이 4월 15일(토)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선 목사)에서 있었다. 본 행사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한정협)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성결교단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은 신재원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새춘천성결교회)의 사회, 최상도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사암성결교회)의 기도, 유동선 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의 설교와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노성호 교수(한림대학교)의 강원도 소개에 이어 시내투어와 점심식사를 하고, 소감발표 시간을 가진 후,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의 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춘천복음화와 경찰복음화를 위한 2017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부흥성회



춘천복음화와 경찰복음화를 위한 2017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 김한호 목사) 부흥성회가 4월 23일(주일) 저녁7시에 은혜가운데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 날에는 주향교회 찬양단의 찬양이 있었고, 수석부회장 김원중 목사(춘천우리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증경회장 양기태 목사(신남감리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협동총무 최동혁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회장 김한호 목사(동부교회)와 춘천경찰서장 한상균 총경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 날 강사인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사무총장)는 "벧세메스를 향하는 신앙"(삼상6:7-1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회계 윤정호 목사(순복음생명셈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김하은 자매(감사장로교회)의 헌금찬양이 있었다. 총무 정제호 목사(늘사랑교회)의 광고에 이어 합심기도 후, 직전회장 박재영 목사(소망성결교회)의 축도로 부흥성회를 마쳤다.

순복음춘천교회, 혜민사랑의 집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부설 혜민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 창립 14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5월 10일(수) 오전10시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다. 기념 예배에서는 평균 81세, 70여명의 빌립보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수형 담임목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혜민사랑의 집 초창기 때부터 봉사하고 있는 이무식 장로, 성순주 권사(석사감리교회) 부부의 연주와 찬양이 있었다. 혜민사랑의 집 대표로 섬기고 있는 조남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원로)의 경과 보고 후, 교역자들이 어버이은혜를 합창했다. 예배를 마친 후 교회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다. 혜민사랑의 집은 2003년 5월 5일 개관하여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역 어르신들에게 매일 무상 점심급식을 하고 있다. 식사뿐 아니라 색소폰, 기타 등 교회 연주자들의 연주와 외부 초청 강사들의 웃음치료, 건강, 교양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7 강원CBS사옥 건축을 위한 방송선교대회

2017 강원CBS사옥 건축을 위한 방송선교대회가 5월 12일(금) 오후8시에 은혜가운데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좋은친구 찬양단(순복음 춘천교회)이 경배와 찬양을 드렸고, 사회에는 이병철 목사(강원CBS 운영이사, 주향교회)가 맡았다. 하기철 목사(운영이사 순복음제일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남준섭 장로(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장, 순복음춘천교회)가 성경봉독을 하였다. 이어 이수형 목사(운영이사 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가 인사 및 강사소개를 했다. 이 날 강사인 김형민 목사(대학연합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라!"(삼하 6장 20-21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합심기도에 이어 나이영 본부장(강원CBS)의 인사 말씀 후, 김창환 목사(운영이사회 부이사장, 온누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제1기 춘천 직장선교대학 개강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윤창호 장로, 강원도청)는 지난 4월 10일(월) 오후7시에 효신교회(이상욱 목사)에서 지역 내 목회자를 초빙한 가운데 제1기 춘천직장선교대학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재웅 목사(한국직장선교대학)의 사회,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감리교회)는 '하나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최상도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사암성결교회 담임)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다. 금번 제1기 춘천직장선교대학에는 7명의 훈련생이 4월부터 6월까지 1단계 훈련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기초 육성(1단계), 사역자 육성(2단계), 직장선교 지도자 육성(3단계) 등 1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 수자는 지역 간사로 세워져 직장선교에 헌신하는 핵심 지도력을 양성하고 춘천성시화 운동에 동참하는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전왕표 총무(도청신우회)

춘천 54기 아버지학교 수료



춘천아버지학교(지부장 김승국장로, 강촌감리교회) 54기 수료식이 5월 13일(토) 오후2시에 창대교회(이성신 목사)에서 있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4주간 은혜가운데 진행된 54기 아버지학교에서는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9월 55기 아버지학교는 홍천, 10월 56기 아버지학교는 주향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CF 부흥성회

목회자 기도모임인 CCF(Chuncheon Church Fellowship)에서는 이계호 교수 초청 특별 집회 "태초 먹거리(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창1:1)"를 5월 12일(금)-13(토)에 춘천효자감리교회(김종호 목사)에서 가졌다. 금번 성회에서 모여진 헌금은 인도 비하르 신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5차 춘천모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65차 춘천모임이 5월 15일(월) 저녁 7시에 은혜가운데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이 날에는 오성훈 목사(쥬빌리 사무총장대행, PN4N 대표)가

"Win가 아닌 How"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쥬빌리통일국제기도회 춘천모임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화요통일기도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4시에 주향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춘천기사선교회 어버이 큰 잔치 열어

춘천기사선교회(박무영 장로, 제일감리교회)에서는 5월 19일(금)에 송암경기장 볼러스케이트장에서 "어르신 봄나들이를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 양지노인마을 어르신 80여분을 모시고 축하 공연과 드라이브, 산책을 하며 어르신들을 섬겼다. 춘천기사선교회는 2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 오고 있다고 박무영 회장은 전했다.

신성감리교회 어르신 잔치 열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5월 16일(화)에 신성감리교회(박상철 목사)에서 "어르신 잔치"를 열었다. 신성감리교회에서는 후평1동에 거주하시는 300여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애쓰신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가진 어르신 잔치에서는 최동영 춘천시장이 참여하여 축하해주었고, 위로 공연과 식사를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장으로 가졌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가 5월 22일(월) 저녁8시에 은혜가운데 거성교회(김수복 목사)에서 있었다. 이 날에는 신동설 장로(청미디어)가 강사로 나서 "이승만의 리더십, 선각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업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갖은 후 마쳤다. 통일광장기도회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을 갖고 있다.

춘천동부디아코니아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이 위탁운영법인으로 춘천동부교회(담임목사 김한호)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춘천동부디아코니아'가 선정되어 5월 31일(수) 수탁기념식을 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춘천동부디아코니아 대표 김한호 목사는 '복지선진국인 독일의 노인복지를 벤치마킹하여 노인 스스로 일하거나 봉사하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들의 자립과 독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반사항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남부복지관은 방송길 86에 2013년 개관하여 이랜드가 운영해오다가 금번에 춘천동부디아코니아가 맡게 되었다. 신임관장에는 박란이 관장이 임명되었다.(033-241-5600)

[교계동정]
사랑감리교회 염명동목사님 춘천남지방 감리사 취임

취재/사진 이은정

잠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홍준표),
'반대하지요, 그럼요' (문재인),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없다. 성소수자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심상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제공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나눈 이 대화는 선거가 끝난 지금도 엄청난 반향을 몰고 있고 앞으로의 정책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내 동성애, 동성결혼등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후보시절에 약속한 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 한 계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상호모순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미화, 옹호, 조장하는 호모마니아들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차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동성애는 옳지 않다, 반대한다' 라는 발언조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려는 법적 근거로 포차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 포차법의 핵심내용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전 국민에게 강제함으로 특정 이념의 전파와 그로인한 삶의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려 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 특정이념이란 다름 아닌 심상정 후보의 발언의 뒤 배경에 있는 유럽 사회주의를 모방한 인권과 성평등 개념과 정책이다. 물론, 동성애 등이 개인적인 윤리에 머문다면 다른 사람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말한다는 것은 다소 구차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성애,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 이데올리기)에 근거한 일련의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제도화되어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 정책과 제도 하나하나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학교교육과 법제정에 있어는 더욱 그러하다. 과연 그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일까?

- ☐ 군대내 동성애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동성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세금혜택, 건강보험, 입양 등의 모든 것들을 남녀의 혼인관계와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동성애를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같이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동성애를 해서는 안되며, 특히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남편에게서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그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저해 된다'고 발언한 시청직원을 징계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 문제점을 수업 중에 이야기함에 있어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에 찬성하는가?
-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추진함에 있어 화장실을 남녀 이외의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아예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추진함에 있어 '엄마, 아빠'의 단어를 삭제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해 사회적 남녀의 역할구분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도 없애자는 것에 찬성하는가?
-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추진함에 있어 트랜스젠더들의 성전환 수술비용, 호르몬 주사비용 등 국가가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제도는 비정상적인 이데올로기임을 학교성교육에 넣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 ☐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자본주의하에서 재벌을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가?
- ☐ 아동(18세미만)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성적대상자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원하는 때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학교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차별주의자' 이며 '혐오주의자' 인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을 비정상화'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협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1단지사장집규)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교회음악(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피아노 1층
문의 : 010.6375.8874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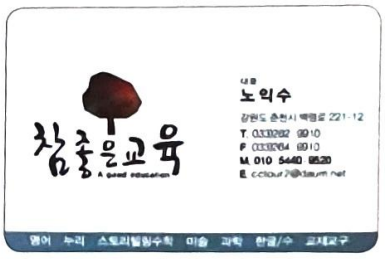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1.361.1995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문의 : 033.263.5455(입원상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후원자

강민승 강민찬 강석봉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구민오 권경애 권여림 권영일 권영자 권혁지 권현정 김경순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도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민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자 김요섭 김용배 김용기 김은아 김은희 김일삽 김재홍 김정미 김정숙 김정의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진숙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혜란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남궁자 남상구 남하은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 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병학 박상준 박상혁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영호 박옥화 박완영 박은경 박은혜 박춘자 박필상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배진철 배한나 배향미 변종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현애 석지찬 성기온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봉서 손임순 송갑수 송경화 송영인 송향순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자 신온수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미선 양봉남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제영 오준영 오흥금 오흥수 용영옥 원예슬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동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원중 윤은미 윤은옥 윤정희 윤학병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호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보람 이봉연 이상안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세희 이소영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윤 이영준 이은경 이은옥 이은정 이은준 이주영 이지영 이진주 이충훈 이태우 이현석 이혁옥 이혜란 임경혜 임덕수 임소희 임순희 임영광 임우선 임인숙 임정이 임청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장형성 전윤배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미신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숙 정재인 정종승 정주함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인지 조성경 조소현 조진경 주명호 주신지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채재관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명기 최미명 최선이 최승경 최영달 최영희 최옥순 최은숙 최은영 최인숙 최정자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최종호 탁광희 표복순 하문옥 한건명 한명수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신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순덕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택기 황금심 황기연 황영희 황병호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놀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아이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술교회 주찬양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성산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산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중부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심감리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흥천중앙교회

단체 및 기업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기독문인회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이디아남춘천 장기방문요양센터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